

개벽사 『중국단편소설집』 번역자 소고*

崔昌旻** · 趙穎秋***

- | | |
|-----------------------|------------------------|
| I. 실마리 그리고 金弘善 | IV. 개벽사, 계연집과 백년의 미스터리 |
| II. 중국어 원작과 평민대학의 교수진 | V. 먼 길을 돌아온 이유 |
| III. 번역문의 내용과 문체적 특징 | |

● 국문초록

본고는 그동안 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던 한국 최초의 중국근대문학 작품집인 『中國短篇小說集』(개벽사, 1929.1.25)의 번역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실증적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에 중국어 원작의 출처 및 그 저자들과 북경 평민대학 교수진과의 관계, 번역서와 김홍선의 기타 한국어 작품들과의 주제·문체적 근접성, 김홍선과 개벽사 및 천도교와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베이징 평민대학에서 유학하였던 천도교인 김홍선이 번역자임을 밝혔다. 더불어 본고는 天友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김홍선이 바로 중국의 『京報副刊』, 『國聞週報』 등에서 활발한 문필활동을 펼친 翠生임을 고증하기도 하였다. 이는 천도교인 및 독립운동가들과 중국의 언론인 및 문학장과의 연동과

* 본고의 작업을 위해 『天道敎中央宗理院 庶務課日誌』를 제공해주신 천도교중앙총부 자료실 강선녀 선생님, 『私立普成中學校 第八回 卒業生 紀念』 및 『普成校友會報』를 제공해주신 근대서지학회 오영식 선생님, 그리고 함께 자료를 찾아주신 계연집 선생님의 친손 계한경 선생님,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의 박길수 선생님과 천도교 서울교구의 이동초 선생님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자료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의 曾銘 선생님,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의 최주한 선생님, 남경대 한국어문학과와 윤은자 선생님,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진석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남경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제1저자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공동저자

정을 드러내 주고 한국의 중국 신문학 수용이 문학장을 넘어서서 혁명과 저항적 의지의 구현이기도 하였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中國短篇小說集』, 金弘善, 翠生, 천도교, 개벽사, 平民大學

I. 실마리 그리고 金弘善

1929년 1월 25일 개벽사에서 출간한 『中國短篇小說集』은 한국근대문학번역사 특
히는 중국문학번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선구적 업적이었다. 이는 한국 최초로
단행본으로 출간된 중국 신문학 작품집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기 유일한 중국근대문
학 번역서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근대문학작품 번역서들인 이명선의 『중국현대단
편소설선집』(선문사, 1946.6.30), 김광주, 이용규 공역의 『루쉰단편소설집(1~2)』(서
울출판사, 1946.8.20, 1946.11.15), 윤영춘의 『현대중국시선』(청년사, 1947.7.29) 등
이 발간되기까지는 광복을 기다려야만 했다. 박진영은 이 번역서에 대해 “오사 시대
의 근대소설에 초점을 맞춘 개벽사의 기획은 식민지시기의 중국문학 번역을 도틀어
가장 빛나는 성과임이 틀림없다”고 평가하며 그 시대적 의미를 “1929년에 출판된
『중국 단편소설집』이야말로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신호탄인 동시에 분수령이나 다름
없다.”¹⁾고 지적한다. 홍석표 또한 “1927년 8월에 류수인에 의해 최초로 루쉰의 단편
소설 『광인일기』가 번역 소개되었고, 이어 1929년 1월 개벽사의 『중국단편소설집』이
나옴으로써 한국 독자들도 중국 현대문학을 작품으로 만나게 되어 중국문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²⁾되었다고 평가하는바 이는 개벽사의 『중국단편소설집』이 근대한국문
학과 그 독자들이 ‘신문학’으로 불리던 중국근대문학에 눈길을 돌리도록 한 중요한
계기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기 작품집은 15명에 달하는 중국 근대소설가의 15편의
작품을 담아내는 큰 규모의 번역 작업으로서 중국어 원본과 대조해 볼 때 상당한
정확성을 보이며 그 문체의 유려함과 생동감 또한 당대로서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
는 秀作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번역서의 번역자는 지금껏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양견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으며³⁾ 2009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이시활에 의해 이의가 제기
된다. 이시활은 번역서의 『譯者の 말』에 ‘北京 平民大學에서’라고 밝혀져 있으나 양

1) 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민족문화사연구』 55, 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126, 124면.

2) 홍석표, 『루쉰과 근대 한국-동아시아 공존을 위한 상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89면.

3) 박진영에 의하면 이는 양백화 선집 즉 박재연·김영복 편, 『양백화 문집』 1, 지양사, 1988과 남윤수·박재연·김영복 편, 『양백화 문집』(전 3권), 강원대 출판부, 1995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중국단편소설집』을 수록하면서 잘못 알려진 것이다. 박진영, 앞의 논문, 126면, 각주 7 참조.

건식이 중국에서의 유학한 적이 없는 만큼 번역자일 수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그는 “이 책의 역자는 평민대학에 유학하고 재만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가입한 경력이 있고, 노자영이 주관한 『신인문학』에 「文學漫筆」과 「중국 작가 바金的 창작태도의 고찰」(《新人文學》11권 제3권 제2호, 1936년 3월)이란 글을 발표한 李達로 추정할 수 있다.”⁴⁾고 보았다. 이에 대해 이웅과 뉴린제 또한 작품집에서 번역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음을 근거로 “평민대학에 재학한 바 있으며, 중국 현대문학에 대한 비평을 다섯 편이나 발표하였고, 일본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여 국내에서 실명을 밝힐 수 없었던 이달이 번역했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보았다.⁵⁾ 하지만 같은 글에서 연구자 자신이 지적하다시피 1910년 출생의 이달이 1928년 3월, 만 18세의 나이로 번역서를 완성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적을뿐더러 이달이 『現代中國文壇의 十大女作家論』(『東亞日報』 1935.1.16.~19)을 첫 작품으로 뒤늦게야 문필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시활은 같은 논고에서 조성환의 「북경의 기억 그리고 서사된 북경」에서 제시된 베이징유학생 명단을 근거로 이달이 평민대학에서 유학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조성환의 논문에서는 명단의 실증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⁶⁾

보다 진전된 논의는 2014년에 이르러 박진영에 의해 전개된다. 그는 이시활과 마찬가지로 『중국단편소설집』 머리글인 「역자의 말」에 근거해 번역자가 1928년 3월 경 평민대학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양건식이 아니라고 단정하며, 나아가 “단행본 출판을 주선한 이두성과 계연집에게 사의를 표한 점을 보면 실제 번역가 겸 편집자는 천도교 청년당 계열의 인사가 분명하고 개벽사 편집진의 일원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았다.⁷⁾ 그러나 그 이후로 『중국단편소설집』 번역자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단편소설집』에 대한 전문 논의인 우재호·서경민의 「梁白樺의 번역서 『中國短篇小說集』에 대하여」⁸⁾에서는 여전히 번역자를 양건식

4) 李時活, 「일제강점기 한국 작가들의 중국 현대문학 바라보기와 수용양상-梁建植, 李東谷, 梁明을 중심으로」, 『중국학』 33, 대한중국학회, 2009, 437면.

5) 이웅·뉴린제, 「재중 독립운동가 이달의 아나키즘 사상과 의식세계-조선의용대통신」 및 「구망일보(救亡日報)」 기고문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103, 한국중국어문화회, 2020, 126면.

6) 趙誠煥, 「북경의 기억, 그리고 서사된 북경」, 『중국학』 27, 대한중국학회, 2006, 346~351면.

7) 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민족문화사연구』 55, 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126면.

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뿐더러 수록 작품 말미에 모두 원작의 원전 출처가 밝혀져 있음에도 그 원본이 아닌 재수록본을 대조 연구의 저본으로 삼고 있다.

이에 『중국단편소설집』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단서들이 주어진다. 첫째, 「역자의 말」에 “三月二十八日 北京平民大學에서 譯者 씀”⁹⁾이라고 밝혀져 있고, 이 책이 1929년 1월 25일에 발간된 것을 보아 번역자가 1928년 3월 경 베이징의 평민대학에 머물렀음을 알 수가 있다.

둘째, 박진영의 분석처럼 같은 면에서 번역자가 “最後로 할 말은 이 冊이 出版되기까지는 모두가 桂淵集, 李斗星 동무들의 周旋으로 된 것”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번역자가 천도교 특히는 천도교청년당과 연고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두성은 이 책의 저작권 속표지에 “著作 兼 發行者”라 표기되어 있을뿐더러 1920년 이후 줄곧 개벽사의 발행인으로 활동해 왔으므로 당연히 번역자가 사의를 표하는 대상이 되었겠지만 계연집은 천도교청년당 소속이긴 하지만 개벽사에서 활동한 바가 없다. 그는 평북 선천에서 활동하다가 1923년 5월 천도교중앙종리원 경리과원으로 발탁되어 상경한 이후, 1925년 4월 천도교청년당중앙위원, 1928년 1월 천도교청년당 경성부 서무위원으로서의 행보를 보인다.¹⁰⁾ 번역자가 계연집의 이름을 발행인 이두성보다도 앞에 두었음은 계연집이 매개가 되어 번역서 출간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셋째로 텍스트를 살펴보면 번역자가 뛰어난 중국어 이해력은 물론 유려한 한국어 문필 능력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가 번역서에 앞서 기타 문학적 행보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제2장에서 도표로 정리되었지만 『중국단편소설집』에 수록된 15편의 작품 중 중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작품은 「阿蘭의 母親」으로서 1926년 3월 27일에 발표되므로¹¹⁾ 번역작업이 1926년 초에서 1928년 초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즉 번역자는 같은 시기나 앞선 시기에 한국어 문필활동, 특히는 문학 관련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우리 朝鮮靑年들은 넓으면 피가 끌어올리고 넓고 난 뒤에는 그 썩고 구릿냄새 나는 生活 속에서 에라! 하고 뛰어나올만 한 元氣를 도아주는 革命的 文藝를

8) 禹在鎬·徐景敏, 「梁白樺의 번역서 『中國短篇小說集』에 대하여」, 『第28次 東北亞細亞文化學會國際學術大會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9) 『中国短篇小说集』, 開闢社, 1929, 「譯者の 말」 4면.

10) 李東初, 『동학천도교 인명사전(제II판)』,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9, 70면.

11) 楊振聲, 「阿蘭의 母親」, 『現代評論』 제3권 제68호, 1926.3.27.

넓어야 한다”¹²⁾는 표현을 보아 번역자가 ‘혁명적 문예’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시환의 경우 이를 근거로 무정부주의자인 이달을 번역자로 추정했겠지만 ‘혁명’은 1920년대 초중반 중국을 경유한 문인 일반이 자주 다루던 명제이다.

이에 베이징 천도교인들의 단체 활동을 살펴보면 1925년 3월 2일 창립된 ‘天道敎留支儉學獎勵會’에 대한 ‘총독부’의 기록이 마지막임을 알 수 있다. 그 발기인 명단을 통해 확인되는 북경 체류 천도교인들로는 “南亨祐, 李成龍, 崔東昨, 李東谷, 金弘善, 武文襄, 張義漢” 등이 있다.¹³⁾ 이들 중 『개벽』지나 천도교 기관지였던 『천도교회 월보』 등에서 문필활동을 한 사람으로는 최동오와 이동곡, 김홍선으로 좁혀진다. 다시 최동오는 1925년 하반기 ‘만주’로 활동무대를 옮겨¹⁴⁾ 화성의숙 숙장을 지내며, 식민지기 문필활동은 1922년 1월의 「中國女子界를 보고 우리 女子界를 봄」(『개벽』 제19호)이 마지막이다. 한편 이동곡의 문필활동 역시 1925년 6월의 「現下의 危機를 凝視하면, 朝鮮經濟 破滅의 原因 現狀 及其 對策(중)」(『개벽』 제60호)을 마지막으로 중단되며¹⁵⁾ 그 이후로는 행방조차 감춘다. 이들 중 김홍선이 유일하게 베이징 평민대학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는 1922년 9월 평민대학 대학부 예과에 입학,¹⁶⁾ 1927년 6월 경 평민대학 신문학과를 졸업한다.¹⁷⁾ 또한 그는 졸업직후인 1927년 7월 20일

12) 『中国短篇小说集』, 開闢社, 1929, 「譯者の 말」 1~2면.

13) 朝鮮總督府警務局長, 「天道敎留支儉學獎勵會=關スル件」, 1925.6.2,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haf_072_0440[검색일: 2021.8.25].

14) 「策應會交渉」, 『독립신문』, 1925.9.25에 의하면 최동오는 거주권과 농작권을 침해하는 군경의 횡포에 항의하여 신징(興京) 거주 한중 양국인이 조직한 책응회 대표로 평토헌서(奉天省署)에 파견된다. 이는 최동오가 천도교유지검학장려회가 결성된 1925년 3월에서 책응회 대표로 활동하게 되는 같은 해 9월 사이에 만주 봉천으로 자리를 옮겼음을 보여준다.

15) 차태근, 「한국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시좌-1920년대 전반 李東谷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4, 한국학연구소, 2019, 249~250면 [부록] 이동곡/이민창의 논문 투고 상황(1922~1925) 참조.

16) 平民大學 敎務處, 『平民大學概觀』, 和記印字館, 1923, 58면의 「在校學生一覽表」를 보면 ‘大學部 예과 제2학년’조에 ‘金弘善, 朝鮮義州’로 되어 있으며 입학 연월이 표기되어 있다.

17) 이는 졸업 사진과 함께 실린 아래의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北京 留學한 四君의 榮譽: 조흔 성적으로 各 大學 卒業」, 『中外日報』, 1927.6.23, 2면; 「異域에서 錦衣 입고 고국으로 돌아올 北京 留學生 四名」, 『동아일보』, 1927.6.24, 5면; 「異國서 畢業한 榮譽있는 四君」, 『조선일보』, 1927.6.24, 2면. 상기 기사들에서는 김홍선의 다른 이름인 ‘金天友’로 표시되어 있는데 김홍선은 일찍 1921년부터 경우에 따라 김천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義菴孫先生의 碎詩募集」, 『독립신문』, 1921.3.5). 또한 많은 신문기사과 일제의 기록물들에서 같은 인물을 두고 이름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 김홍선과 김천우가 異名同人임을 알 수 있다.

‘천도교청년당 북경部 대표’로서 국민당 좌파와 연락했다는 혐의로 베이징 경찰청에 체포되어 1927년 12월 3일에야 석방된다.¹⁸⁾ 그리하여 미처 새로운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평민대학에 그대로 머물다가 1928년 4월 11일 타살된다.¹⁹⁾ 이를 통해 김홍선이 평민대학에서 머문 기간이 『중국단편소설집』 번역 작업 시간과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는 1925년에서 1928년 2월에 이르기까지 『개벽』, 『新民』, 그리고 『天道教會月報』와 천도교청년당 간행물인 『新人間』에 무려 12편에 달하는 글을 발표한다.²⁰⁾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그중 1926년 『신인간』에 발표한 「金牌」과 「문데의 편지」는 문학적 글쓰기, 즉 소설이라는 점이다.

상기 사실들을 통해 김홍선이 『중국단편소설집』의 번역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진다. 간략한 소개로 대신한다면 김홍선은 평안북도 의주군 출신의 천도교인으로서 임정과의 연대를 위해 1920년경 상하이로 파견되며 같은 의주출신의 선배 교인으로서 중국내 천도교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던 최동오를 따라 1925년까지 같은 행보를 보인다. 그는 1920년 3월 임정의 내무부 서기로 임명되기도 하며 천도교 홍보에 힘쓰는 한편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일경에 피체되기도 한다. 1922년 1월 이후로는 북경에 정착, 평민대학을 다니는 한편 천도교 북경전교실의 설립과 운영에 힘썼으며 1923년 11월에는 의열단원의 국내 잠입을 돕고 1924년 8월에는 ‘在北京韓僑同志會’ 결성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다. 1925년 후반 최동오가 만주로 거점을 옮긴 후 김홍선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1926년 10월 ‘大獨立黨組織 北京促成會’에 참여, 같은 해 12월에는 ‘북경한국유학생회’의 집행위

18) 「金弘善氏 放免」, 『동아일보』, 1927.12.9, 2면; 「金弘善氏 放免, 북경경찰청에서」, 『조선일보』, 1927.12.9, 2면.

19) 「密偵을 殺害 白河에 暗葬」, 『동아일보』, 1928.6.3, 2면. 이 기사에서는 ‘金密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후속 기사들을 통해 김홍선임을 알 수 있다.

20) 天友, 「나의 最低希望-新聞 雜誌 及其他 出版業者에 對하여」, 『개벽』 제56호, 1925.2; 於北京 天友, 「孔君의 熱情! 熱情을 讀하고서」, 『天道教會月報』 제176호, 1925.5.15; 北京 金天友, 「最近의 中國政界」, 『新民』 제2호, 1925.6.10; 北京 金天友, 「列強窺伺中之中國動亂」, 『新民』 제8호, 1925.12.10; 北京에서 天友, 「新人間의 女性運動의 指導者 崔海月先生」, 『新人間』 창간호, 1926.4; 北京에서 金弘善, 「中國戰亂과 其 政局의 前途-그들의 東衝西突하는 꼴을 實見하면서」, 『개벽』 제70호, 1926.6; 北京에서 天友, 「過渡期에 處한 吾人의 任務」, 『新人間』 제2호, 1926.6; 天友, 「金牌」, 『新人間』 6호, 1926.10; 北京에서 天友, 「문데의 편지」, 『新人間』 제9호, 1927.1; 天友, 「敎役者의 責任」, 『新人間』 제11호, 1927.3; 在北京 金弘善, 「實狀은 木窓 속에서」, 『新人間』 제20호, 1928.1; 北京 翠生, 「엇제서 絶代服從을 해야 하는가」, 『新人間』 제21호, 1928.2.

원으로, 1927년 5월에는 ‘북경한인청년회’ 집행위원 등으로 활약한다.²¹⁾ 이외에도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김홍선은 평민대학 신문과 학생으로서 학교 교수진을 비롯한 당대 중국의 유명한 언론인 및 작가들과 다양한 교우관계를 맺어왔으며, 중국어로의 활발한 문필활동도 보인다.

이에 보다 면밀한 고증 작업을 위해, 본고는 우선 『중국단편소설집』 수록 작품의 중국어 원작 출처에 대한 고찰과 김홍선의 중국 문인들과의 교유 관계를 연동시킴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번역문에 대한 세밀한 텍스트 읽기를 통해 주제와 문체에 있어 김홍선의 기타 문필활동과의 근접성 여부를 살피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김홍선과 개벽사 및 천도교와의 관련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중국어 원작과 평민대학의 교수진

『중국단편소설집』 번역자에 대한 추론이 설득력을 얻자면 무엇보다 작품의 원작 출처에 대한 세밀한 고증이 앞서야 한다. 다행히 『중국단편소설집』의 수록 작품의 말미에는 번역자가 저본으로 한 중국어 원작 출처가 모두 밝혀져 있다. 비록 “晨報社小說 第一集 中에서”(93면), “現代評論 第二卷 中에서”(151면) 등으로 소략하긴 하지만 1920년대 중국에서 출간된 단행본이나 잡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수록 작품을 원작의 출처 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중국단편소설집』 수록 작품 원작 출처별 정리

수록 순위	저자명	작품명	출처	출간일
5	蒲伯英	서울의 共和	晨報社叢書 第五種 中에서	
	止水	城里的共和	『晨報社叢書第五種: 小說第一集』, 晨報社出版部	1920.12.15

21) 김홍선의 행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주노, 「『魯迅日記』 중의 金天友 小考-魯迅兄弟와 無政府主義를 겸하여 논함」, 『중국현대문학』 86,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8을 참조할 수 있다.

개벽사 『중국단편소설집』 번역자 소고

6	南庶熙	光明	晨報社叢書 第五種 中에서	
	晨曦	光明	『晨報社叢書第五種: 小說第一集』, 晨報社出版部	1920.12.15
9	陳大悲	民不聊死	晨報社 小說 第一集 中에서	
	大悲	民不聊死	『晨報社叢書第五種: 小說第一集』, 晨報社出版部	1920.12.15
11	謝冰心女士	小說의 結局	晨報社 小說 第一集 中에서	
	冰心女士	一篇小說的結局	『晨報社叢書第五種: 小說第一集』, 晨報社出版部	1920.12.15
3	吳鏡心	範圍內에서	小說 第二集 中에서	
	鏡心	範圍內	『晨報社叢書第六種: 小說第二集』, 晨報社出版部	1924.2.20
14	許欽文	口約三章	小說 第二集 中에서	
	欽文	口約三章	『晨報社叢書第六種: 小說第二集』, 晨報社出版部	1924.2.20
1	周魯迅	頭髮 니야기	作者 創作集 『吶喊』 中에서	
	魯迅	頭髮的故事	『吶喊』, 北京新潮社	1923.8
4	馮文炳	깨끗한 봉투	작자 창작집 竹林的故事 中에서	
	馮文炳	講究的信封	『新潮社文藝叢書之九: 竹林的故事』, 北京新潮社 ²²⁾	1925.10
7	葉紹鈞	兩封回信	作者的 創作集 隔膜 中에서	
	葉紹鈞	兩封回信	『文學研究會叢書: 隔膜(創作集一)』, 上海商務印書館	1922.3
13	盧隱女士	초어스름에 온 손님	文學研究會叢書 創作集二 中에서	
	盧隱女士	傍晚來的來客	『文學研究會叢書: 小說彙刊』 第1集, 上海商務印書館	1922.5
8	馮叔鸞	離婚한 뒤	國聞週報 第二卷 ²³⁾ 二十一期에서	
	馬二先生	離婚之後	『國聞週報』 제1권 제21호	1924.12.21
12	何心冷	내 안해의 남편	國聞週報 ²⁴⁾ 第二卷 第三十九期에서	
	浪漫	吾妻之夫	『國聞週報』 제2권 제39호	1925.10.11
10	徐志摩	船上	現代評論 第一卷에서	
	徐志摩	船上	『現代評論』 제1권 제18호	1925.4.1
15	叔華	花之寺	現代評論 第二卷 中에서	
	叔華	花之寺	『現代評論』 제2권 제48호	1925.11.7
2	楊振聲	阿蘭의 母親	現代評論 六八期에서	
	楊振聲	阿蘭의母親	『現代評論』 제3권 제68호	1926.3.27

비고: 작품별로 위줄은 번역서에 제시된 정보이며 아랫줄은 중국어 원작의 정보이다.

22) 저작권 표기 속표지에는 발행자가 '北新書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1925년 3월 복신서국이 설립되

여기서 우리는 “나는 이 몇 편을 撰擇하노라고 一箇月 以上の 時間을 보내었고 冊 數효로는 二百餘 卷을 뒤적거리었다.”²⁵⁾는 번역자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번역자는 자기가 익숙한 작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일일이 작품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번역할 작품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가 어떤 종류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해진다.

다시 <표 1>을 보면 원작의 출처가 5개임을 알 수가 있다. 즉 ① 베이징 晨報社출판부 총서의 『소설 제1집』에서 4편, 『소설 제2집』에서 2편, 총 6편의 소설을 선택했으며, ② 新潮社의 창작집에서 2편의 소설을, ③ 문학연구회의 창작집에서 2편, ④ 『國聞週報』에서 2편, ⑤ 『現代評論』에서 3편의 작품을 선택하였다.

베이징 『晨報』는 량치차오(梁啟超) 등이 창립한 근대 중국의 대표적 신문으로서 1916년 『晨鐘報』로 출발하여 1918년 12월 『신보』로 재출발, 1928년 6월까지 발행되었다. 그리고 그 출판부에서 펴낸 총서인 『소설 제1집』과 『소설 제2집』은 民國시기 4대 신문 副刊²⁶⁾의 1순위였던 『晨報副鐫』에 게재되었던 작품들을 다시 소설집으로 묶어낸 것이다.²⁷⁾ 시간적으로는 1919년 6월에서 1923년 9월 25일까지 게재된 작품들로서 『晨報副鐫』의 전신인 『晨報』 第7版은 초기에는 중국의 저명한 지식인인 리다자오(李大釗)가 主編을, 1920년 8월부터 1924년 10월 31일까지는 쑨푸위안(孫伏園)이 주편을 맡았다. 한편 쑨푸위안이 『신보부전』을 주재하는 기간 저우쥘런(周作人), 루쉰 형제가 가장 중요한 기고자였는바 저우쥘런은 192편의 글을, 루쉰은 129편의 글을 발표한다.²⁸⁾ 한편 빙신(氷心) 역시 신보부간이 발굴한 신인 여성작가였다.

면서 신조사의 책들이 북신서국으로 옮겨 출간되기 때문이다.

23) ‘제1권’의 잘못이다.

24) ‘國聞週報’의 오식이다.

25) 『中国短篇小说集』, 開闢社, 1929.1.25, 「譯者の 말」 1면.

26) 한국 일간지의 학예면과 비슷하나 흔히 4면 좌우이며 별지로 인쇄하여 신문에 끼우는 단독 간행의 형식을 취하였다.

27) 止水, 「城里的共和」, 『晨報』(第7版) 1919.6.4; 晨曦, 「光明」, 『晨報』(第7版) 1920.11.11~12; 大悲, 「民不聊死」, 『晨報』(第7版), 1920.4.16; 氷心女士, 「一篇小説的結局」, 『晨報』(第7版) 1920.1.29; 鏡心, 「範圍內」, 『晨報副鐫』 1923.8.5~6; 欽文, 「口約三章」, 『晨報副鐫』 1923.9.25.

28) 崔燕·崔銀河, 「孫伏園與『晨報副刊』實證研究」, 『魯迅研究月刊』 12, 北京魯迅博物館, 2019, 97~98면.

신조사는 1918년 11월 19일, 북경대학 학생들이 신문화운동을 응원하기 위한 잡지 출간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1919년 1월 잡지 『신조』를 발간한다. 한편 이들은 1920년 5월 저우쥘런을 초청하여 가입시키는데 그는 성원 중 유일한 교수였다. 저우쥘런은 1920년 10월 28일부터 『신조』지 주임편집을 맡게 되고 1919년 제4기로 이미 신조사에 가입한 쑨푸위안이 그의 밑에서 편집을 맡는다. 그 이후 1925년 3월 15일 신조사의 성원이며 북경대학 철학과 학생인 리샤오팡(李小峰)이 출판사 北新書局을 창립하면서 신조사의 잡지와 도서들은 모두 북신서국에서 출간하기에 이른다.²⁹⁾ 그리고 1923년 5월에서 1927년 5월까지 출간된 ‘신조사문예총서’는 모두 저우쥘런이 주관하였다.³⁰⁾

문학연구회는 중국근대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문학단체로서 1921년 1월 4일 베이징에서 설립되는데 12명의 발기인 가운데 저우쥘런, 쑨푸위안, 그리고 예사오쥘(葉紹鈞) 등 4명의 신조사 성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루인(盧隱) 역시 중요한 구성원이었다.³¹⁾ 문학연구회는 베이징의 문인들이 상하이의 유명 출판사인 商務印書館과 연대하여 조직한 전문적인 문학단체였으며, 이에 상무인서관의 편집인 정전뎬(鄭振鐸)의 주도하에 1921년부터 ‘문학연구회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된다.³²⁾ 한편 쑨푸위안은 1923년 6월 1일부터 문학연구회의 간행물인 『文學旬刊』을 신보부간과 함께 발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³³⁾

이상으로 신보사의 소설집이나 신조사의 창작집, 그리고 문학연구회의 총서가 모두 저우쥘런 및 쑨푸위안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단편소설집』이 상기 특정 출판물을 작품 선정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번역자가 관련 출판기관 혹은 상기 인물들과 연고의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특히 표1에서 보다시피 그는 중국어 원작에 필명으로 표기된 저자 이름들을 번역서에서는 본명으로 적고 있는데 신보사총서와 관련하여서는 ‘止水’가 ‘蒲伯英’이고 ‘晨曦’가 ‘南庶熙’임을, 『국문주보』와 관련하여서는 ‘馬二先生’이 ‘馮叔鸞’이고, ‘浪漫’이 ‘何心冷’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지금도 전문가가 아니고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신상정보를 정확히

29) 陳樹萍, 「北新書局與中國現代文學」, 華東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156~157면.

30) 陳樹萍, 앞의 논문, 107면.

31) 李秀萍, 「文學研究會與中國現代文學制度」, 首都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20면.

32) 李秀萍, 앞의 논문, 29면.

33) 崔燕·崔銀河, 앞의 논문, 98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번역자가 상기 출판물들의 편집자들과 교류가 있었음을 설명해 준다.

이에 저우쥘런 및 쑤펑위안의 한국인과의 교우관계를 살펴보면 두 가지 선행작업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우선은 조영추의 학위논문으로서 그는 저우쥘런의 추천을 받아 쑤펑위안이 편집자로 있던 『京報副刊』에³⁴⁾ 중국어로 된 소설을 발표한 ‘翠生’이라는 북경 거주 한국인 유학생을 처음으로 언급한다. 또한 취생이 『東方雜誌』에 박영희의 소설 「전투」를 번역하여 발표했으며 『경보부간』과 『국문주보』에 기타 중국어 작품들도 발표했음을 소개한다.³⁵⁾ 실제로 쑤펑위안은 취생의 소설 「一個疑問的人(어느 수상한 자)」을 『경보부간』에 게재하며 ‘伏園附按’이라는 편집자의 간략한 서문을 달아 “저자는 북경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이다. 다른 외국인들이 중국어로 글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치 못하게 문법이 생경한 곳이 있다. 저우치밍(周浬明)(저우쥘런의 字임, 인용자)선생의 소개를 받들어, 나는 외람되게도 그를 이미 오랜 친구로 여겨 대담히 몇 곳을 수정하였다.”³⁶⁾고 밝힌다.

다음으로는 이주노의 『魯迅日記』 중의 金天友 小考에서 저우쥘런 일기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인 김홍선이 저우쥘런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저우쥘런이 “平民大學에 4학기에 걸쳐, 즉 1923년 10월 17일부터 1925년 5월 30일까지 출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³⁷⁾ 실제로 주작인 일기 1925년 9월 20일자에는 “오전에 조선인 김홍선 군이 오다(上午鮮人金弘善君來)”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⁸⁾

한편 2016년 조영추는 『중국단편소설집』에 수록된 대부분 작가들이 평민대학과 연고가 있음을 근거로 평민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김홍선이 번역자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기한다.³⁹⁾ 또한, 본고와 거의 동시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육령의 논고도 김홍

34) 쑤펑위안은 『신보부전』 주편직을 사임한 뒤, 1924년 12월 5일부터 1926년 4월 24일까지 『경보부간』의 주편을 맡는다.

35) 조영추, 「중국에서의 한국근대문학 수용 양상 연구(1926~1949)」, 南京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25~26면.

36) 翠生, 「一個疑問的人」, 『京報副刊』 제358호, 1925.12.15, 4면.

37) 이주노, 『魯迅日記』 중의 金天友 小考-魯迅兄弟와 無政府主義를 곁하여 논함, 『중국현대문학』 86,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8, 5, 21면.

38) 『魯迅博物館藏 周作人日記(影印本)』(中冊), 鄭州: 大象出版社, 1996, 458면.

39) 조영추, 「한·중 근대문학 상호인식의 일 단면-루쉰과 장혁주 문학의 수용 상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제11회 한국 언어·문학·문화국제학술대회,

선과 취생이 동일인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⁴⁰⁾ 이에 취생, 김홍선과 저우쥘런, 쑨푸위안과의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김홍선이 다닌 평민대학 신문학과와 교과목과 교수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민대학의 1923년 12월 기록을 보면 교수로 “孫伏園, 北大 學士, 晨報副刊 主任, 文學概論(담당과목)”이 그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보인다.⁴¹⁾ 또한 1924년 5월의 자료에 의하면 신문과(新聞係) 커리큘럼에 저우쥘런이 ‘日本文學史’를 담당, 교수진에도 “周作人, 浙江紹興(원적), 北京大學 教授, 日本文學史(담당과목)” 등 정보가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⁴²⁾ 같은 자료들의 기록에 의하면 김홍선은 1922년 9월에 예과에 입학, 1923년 12월 현재 예과 2학년이었는데 예과가 2년제였으므로 그는 1924년 9월부터 신문학과를 다녔을 것이다. 이에 그가 쑨푸위안의 ‘문학개론’을 수강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거나 저우쥘런의 일본문학사 수강은 필수였다. 즉 김홍선과 저우쥘런의 사제관계가 분명한 만큼 저우쥘런이 김홍선의 작품을 『신보부전』의 주편인 쑨푸위안에게 추천하였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취생의 중국어 작품들과 김홍선의 행적 및 한국에서 발표한 작품들을 면밀히 대조해 보면 취생이 곧 김홍선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취생의 작품들에서는 천도교를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예들어 「朝鮮獨立運動概觀」에서는 3.1운동 당시 천도교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조선독립운동의 수령 손병희는 인도의 간디나 필리핀의 케손보다도 더 위대하고 고상한 인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⁴³⁾라며 손병희의 사진을 함께 등재하였다. 한편 조선의 교육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동학의 ‘평민혁명주의’, 천도교 역사, 그리고 “천도교는 나름의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지에 교리강습소를 설립하였다”⁴⁴⁾고 소개한다. 특히 저자명을 ‘金翠生’으로 표기하고 있어 김홍선과의 연관성이 보다 뚜렷해진다. 또한 「革命運動中之韓國新思想」에서는 최수운 탄생

2016.8.4, 각주 22.

40) 육령, 「1920년대 주작인의 조선인식 연구-김홍선과의 교우 및 전기적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0, 국제어문학회, 2021.

41) 平民大學 敎務處, 『平民大學概觀』, 和記印字館, 1923.12, 38면.

42) 北京平民大學組織委員會, 『北京平民大學紀略』, 北京: 昭明印刷局, 1924.5, 16, 29면.

43) 翠生, 「朝鮮獨立運動概觀」, 『國聞周報』 제2권 제7호, 1925.3.1, 16면. 본고의 중국어 원작의 인용문은 모두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44) 金翠生, 「外國青年教育現狀-朝鮮青年教育現狀」, 『教育雜誌』 제18권 제1호, 1926.1.20, 10면.

백주년을 기려 건설한 기념관에 대해 소개하고 ‘人乃天’사상을 반제국주의 사상과 연동시켜 해석하며 천도교 신임 상무종법사 최린 및 천도교중앙종리원 건물 사진을 함께 게재한다.⁴⁵⁾ 이러한 문필활동은 천도교의 파견으로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와 천도교북경종리원 소속으로 포덕 활동에 종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천도교 청년당의 기관지인 『신인간』에서 주된 문필활동을 펼쳤던 김홍선의 천도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맞물린다.

둘째로 취생의 중국어 문장과 김홍선의 행적 및 한국어 문장은 상호텍스트성을 보인다. 취생의 소설 『어느 수상한 자』에 나오는 한국인 유학생은 “P大 大學部 本科 三年級”인데, 평민대학의 중국어 첫 음이 ‘P’이며, 이들 P대생들이 머문 ‘蓬萊學舍’는 ‘北城德勝門內’의 작은 골목(胡同)에 위치해 있다.⁴⁶⁾ 실제로 평민대학은 1924년 이후로 베이징의 ‘德勝門內大街 石虎胡同’으로 이전된다.⁴⁷⁾ 한편 이 소설은 평톈성(奉天省) 관덴현(寬甸縣)에서 무장활동을 한 한국인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들은 모두 평안북도인이다.”⁴⁸⁾ 즉 김홍선이 평북 의주 출신인 것을 쉽게 연상시킨다. 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아래의 두 편의 글을 대조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인내천주의는 上帝에 반항하는 운동의 외침이자 상제주의를 타도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나아가 상제에게 빼앗긴 인간의 權能을 회수하는 주의이다. 노라가 남편 헬마에게 ‘나는 사람이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제에 대항하는 주의이다. ……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운동일 뿐이다.⁴⁹⁾

사람이 곳 한울이란 말은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말할 수 없으나 簡單히 말하면 사람들이 神聖不可侵犯으로 信奉하는 上帝의게 反抗하는 口號이었다.

……

海月先生の 말씀하신 한울님은 無論 이러한 權威를 가진 女子와 小兒를 가르킨 것이었다. 우리는 이 말을 입센의 理想 中 女性인 노라가 그의 男便에게 對

45) 翠生, 「革命運動中之韓國新思想」, 『國聞週報』 제3권 제5호, 1926.1.31.

46) 翠生, 「一個疑問的人」, 『京報副刊』 제358호, 1925.12.15, 4면.

47) 李鐵虎, 『民國北京大中學校沿革』,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7, 81면.

48) 翠生, 「一個疑問的人」, 『京報副刊』 제359호, 1925.12.16, 7면.

49) 翠生, 「革命運動中之韓國新思想」, 『國聞週報』 제3권 제5호, 1926.1.31, 12면.

하야 저도 당신과 꼭 갓튼 사람이야요 하는 말에 比하야 더욱 誠實하고 眞摯한 것을 늦기게 된다.⁵⁰⁾

보다시피 두 글에서는 모두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을 인간을 예측하는 권위의 상징이자 굴레인 하느님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해석하고 임센의 「인형의 집」에서 노라가 보인 인간적 각성을 그 예로 든다.⁵¹⁾ 특히 김홍선은 글의 말미에서 “先生(海月 崔時亨, 인용자)은 實로 新人間的 女性의 唯一한 指導者의 忠實한 先驅者이었다. 나는 지금 新人間을 새로 만드는 이 時機에 臨하야 女性運動의 唯一한 指導者인 것만을 鄭重히 紹介하여 先生의 思想과 其 行事に 關하야는 研究하고자 하시는 이는 天道敎書에서 深刻히 吟味함이 잇기를 付托하야 둔다.”⁵²⁾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최시형의 사상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널리 알리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즉 그는 중국의 반제국주의운동의 열기에 힘입어 인내천 사상을 반권위주의와 온전한 인간성에 대한 추구로 해석하여 중국에 소개하였으며 불과 2개월 뒤 그러한 자신의 논리를 다시 한국에 역수입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체험과 중국어 글쓰기에 자극된 지적 사유가 한국으로 옮겨지는 내적 연동성은 값있는 대목이다.

셋째로 보다 결정적인 근거는 1928년 2월 『신인간』에 게재된 「엇제서 絶代服從을 해야 하는가」⁵³⁾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저자를 ‘北京 翠生’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간 『신인간』에 발표된 김홍선의 글들은 대부분 ‘北京에서 天友’, ‘在北京 金弘善’ 등으로 베이징이라는 장소를 밝히고 있으며, 1926년 4월 『신인간』 창간호 이후 베이징 소재로 밝혀진 유일한 기고자는 김홍선 뿐이다. 또한 그가 피살된 1928년 4월 이후, ‘翠生’이란 이름은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더는 보이지 않으며, 『신인간』에서도 베이징 소재의 기고자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중국단편소설집』 수록 작품의 출처로 『國聞週報』 2편, 『現代評論』 3편을 볼 수가 있다. 먼저 『국문주보』를 살펴보면 翠生の 작품 2편이 실려 있다.⁵⁴⁾ 흥미로운

50) 北京에서 天友, 「新人間的 女性運動의 指導者 崔海月先生」, 『新人間』 창간호, 1926.4, 12면.

51) 취생의 중국어 글 「革命運動中之韓國新思想」과 김홍선의 한국어 글 「新人間的 女性運動의 指導者 崔海月先生」의 연관성은 육령의 「1920년대 주작인의 조선인식 연구-김홍선과의 교우 및 전기적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0, 국제어문학회, 2021, 662~663면에서도 분석되었다.

52) 北京에서 天友, 「新人間的 女性運動의 指導者 崔海月先生」, 『新人間』 창간호, 1926.4, 12면.

53) 北京 翠生, 「엇제서 絶代服從을 해야 하는가」, 『新人間』 제21호, 1928.2.

것은 國聞通迅社 북경분사 사장인 우난루(吳南如)가 평민대학의 ‘신문 편집법’ 학과목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23년 12월 기록⁵⁵⁾이나 1924년 5월 신문과 커리큘럼에는 우난루 담당 학과목이 명시되어 있고, 교수명부에도 “吳南如, 江蘇無錫, 北洋大學學士, 新聞編輯法” 등으로 국문통신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⁵⁶⁾ 국문통신사는 1921년 8월 상하이에서 설립되어 1937년 12월까지 존속한 중국 근대의 우수한 통신사이며, 1922년 11월 북경분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1924년 8월 상하이 국문통신사에서 창간한 『국문주보』는 1만 5천부의 발행량을 자랑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주간지였다.⁵⁷⁾ 이처럼 영향력이 큰 잡지에 김홍선이 글을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난루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역으로 『중국단편소설집』의 번역자가 문학지가 아닌 『국문주보』에서 2편의 소설을 선별한 것은 국문통신사와의 인연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수록 저자 중 허신령(何心冷)은 『국문주보』를 주도한 편집자로서 베이징 평민대학에서 재학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⁵⁸⁾

한편, 『중국단편소설집』 수록작품 중 10편의 소설이 모두 저우쥘런이나 쑨푸위안과 관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번역자가 주간지 『現代評論』에서도 작품을 선별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은 『현대평론』이 저우쥘런, 쑨푸위안 등이 주도한 語絲派와 힘겨루기를 하던 잡지며, 북경대학 내에서 저우쥘런 형제는 일본 유학파에 속하고 현대평론을 주도한 쉬즈모(徐志摩) 등 영어학과 교수들은 영미 유학파에 속하여 일찍부터 서로 세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1924년 말 1925년 초의 북경여자사범대학 학생 시위 발발 후, 저우쥘런 형제는 학생들의 편에, 현대평론파는 그와 반대되는 보수적 입장을 보여 치열한 논전을 벌이며 서로 적대적 관계에 이른다.⁵⁹⁾ 그럼에도 번역자가 현대평론파의 핵심인물인 쉬즈모와 양진성, 그리고 『현대평론』의 문예부

54) 翠生, 「朝鮮獨立運動概觀」, 『國聞週報』 제2권 제7호, 1925.3.1; 翠生, 「革命運動中之韓國新思想」, 『國聞週報』 제3권 제5호, 1926.1.31.

55) 平民大學 敎務處, 『平民大學概觀』, 和記印字館, 1923.12, 36면.

56) 北京平民大學組織委員會, 『北京平民大學紀略』, 北京: 昭明印刷局, 1924.5, 16, 29면.

57) 季濤, 「胡政之創辦『國聞週報』」, 『鐘山風雨』 1, 江蘇省政協文史委員會, 2005.2.10, 25면.

58) 李秀雲, 「何心冷的副刊編輯生涯」, 『新聞知識』 1, 陝西日報社·陝西省新聞研究所·陝西省新聞工作者協會, 2010.1.15, 84면.

59) 江嘉, 「現代文壇派系研究-以陳源爲紐帶的考察」, 武漢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19~98면.

주간 천위안(陳源)의 부인인 링수화(冷叔華)의 작품을 선정한 것은 왜서일까? 이에 평민대학 1923년 12월의 교수진을 살펴보면 쉬즈모가 등록되어 있으며,⁶⁰⁾ 1924년 5월의 신문과 커리큘럼과 교수진 명부에도 “徐志摩, 浙江海寧, 英國劍橋大學(케임브리지대), 歐美文學史(유럽·미국 문학사)” 등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⁶¹⁾ 다시 말해 김홍선이 쉬즈모와도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국단편소설집』에 수록된 다른 작가들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주노가 이미 지적하다시피 김홍선은 루쉰의 일기에도 등장한다.⁶²⁾ 루쉰 일기 1925년 5월 3일조 오후에 “김천우로부터 편지를 받다(得金天友信)”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다시 5월 6일 밤에 “김천우에게 편지를 부치다(寄金天友信)”, 5월 10일에는 “오후에 유린과 김천우가 오다.(午後有麟, 金天友來)”라고 적혀 있다.⁶³⁾

한편 푸보잉(蒲伯英)의 경우는 평민대학의 이사였다.⁶⁴⁾ 그는 량치차오 등과 함께 清末民初의 혁신운동을 벌인 사회운동가로서 北洋정부의 내무부 차장을 지낸바 있으며 1918년 9월에서 1923년 중반까지 『晨報』의 총편집(주간)을 맡아 백화문 사용을 추진하였다. 쑨원위안이 『신보부전』을 당대 최고의 문예 부간으로 꾸려갈 수 있었던 것도 푸보잉의 전폭적인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⁶⁵⁾ 또한 푸보잉은 1922년 천다베이(陳大悲)의 요청에 의해 베이징에서 人藝戲劇專門學校를 창립하여 교장을 맡게 되는데 천다베이가 교무장이었고 학교 이사회 이사로는 루쉰과 저우쥘런 형제가 초빙되었다. 그리고 1926년에는 쉬즈모 등과 함께 中華戲劇改進社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기도 한다.⁶⁶⁾

『중국단편소설집』의 또 다른 저자인 난수시(南庶熙)는 철학에 조예가 깊은 번역가로서 1922년 2월 27일 평민대학에서 ‘예술심리’라는 특강을 한바 있다.⁶⁷⁾ 비록 이는

60) 平民大學 教務處, 앞의 책, 37면.

61) 北京平民大學組織委員會, 앞의 책, 16, 30면.

62) 이주노, 『『魯迅日記』 중의 金天友 小考-魯迅兄弟와 無政府主義를 겹하여 논함』, 『중국현대문학』 86,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8, 4면.

63) 魯迅, 『魯迅全集 第十五卷 日記』,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564면.

64) 平民大學 教務處, 앞의 책 27면.

65) 廖華力, 「蒲殿俊與『晨報』副刊」, 『西華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6, 西華師範大學, 2019, 108~110면.

66) 黎人忠, 「蒲伯英及其新文化思想」, 『廣安日報』, 2008.3.6, 1면.

67) 平民大學 教務處, 『平民大學概觀』, 和記印字館, 1923.12, 95~96면.

김홍선이 입학하기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난수시와 평민대학의 인연이 그 이후로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시피 평민대학 신문과 재학 중에 맺어진 김홍선과 이사 푸보잉, 교수 저우쥘런, 우난루, 쉬즈모 등과의 사제 관계,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여러 언론기관 및 작가들과의 인연이 『중국단편소설집』의 편성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결국 김홍선과 취생, 『중국단편소설집』 번역자 간의 일치성은 1920년대 초중반 신문화운동의 진원지였던 베이징 대학가의 한 한국인 유학생의 교제의 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번역서 『중국단편소설집』은 이러한 인적·지적 맥락의 결과물이자 코드화 작업이라 할 것이다.

Ⅲ. 번역문의 내용과 문체적 특징

『중국단편소설집』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번역 텍스트에 대한 세밀한 읽기 작업이 요청된다. 번역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위해서라도 그 텍스트적 특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다.

〈표 2〉 『중국단편소설집』 수록 작품 내용·주제별 정리

수록 순위	저자명	작품명	내용	주제
2	楊振聲	阿蘭의 母親	1926년 3월 18일 반제 학생시위 당시, 딸 하나만을 애지중지 키워온 홀어머니가 북양 정부 시위대에 딸을 잃고 만 이야기	군벌정부 비판
4	馮文炳	깨끗한 봉투	북양 정부에 항의하여 학생시위가 한참일 때, 가정의 어려움으로 권력자에게 빌붙어 관직을 노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	군벌정부 및 지식인의 소시민성 비판
5	蒲伯英	서울의 共和	북양정권 하의 거짓된 공화와 거짓된 공화만을 가져다 준 미국을 지탄하는 시골노인과 미국인 수하에서 건축공사 감독으로 일하는 조카 사이의 대화	군벌정부 비판

9	陳大悲	民不聊死	남군과 북군의 전쟁으로 노모의 시신이 담긴 관마저 빼앗기고 가족을 모두 잃고 마는 여관 주인의 비참한 삶	군벌혼전 비판
11	謝冰心女士	小說의 結局	아들과 노모의 재회를 그린 소설을 쓰려다가 결국에는 노파의 아들이 전장에서 헛되게 목숨을 잃고 마는 결말을 맺고서 아연실색하는 여학생의 이야기	군벌혼전 비판
7	葉紹鈞	兩封回信	구애의 편지를 보내나 여성으로부터 자신은 평등한 인간으로서 남성의 보호도 필요치 않으며, 그렇다고 超人도 아니라며 거절당하는 이야기	여성의 독립성
8	馮叔鸞	離婚한 뒤	자신의 친구와 바람난 남편과 이혼한 뒤, 남자에게 의탁하는 삶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모색하는 여성의 삶	여성의 독립성
3	吳鏡心	範圍內에서	종일 어린 자식과 가사를 돌보며 분주히 보내나 남편으로부터 문을 늦게 열었다고 핀잔을 받는 여성의 힘든 일상	여성의 운명
12	何心冷	내 안해의 남편	사별한 것으로 알려진 아내의 전 남편이 체포되어 결국 토비였던 사실이 드러나며 사형을 당하는 이야기	혼인과 여성의 운명
13	盧隱女士	초어스름에 온 손님	남편의 의심과 시누이의 감시에 시달리다 못하여 결국 어린 시누이를 우물에 빠뜨려 죽인 한 어머님의 비극적 삶	혼인과 여성의 운명
14	許欽文	口約三章	부부싸움 끝에 남편은 젊은 여성을 감상할 자유가 있으나 맘에 담거나 부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맺고 화해하는 이야기	혼인과 부부화목
15	叔華	花之寺	시인이 자신을 사모하는 여성의 편지를 받고 밀회 장소로 나가나 결국 그것이 아내가 보낸 편지임을 알게 되는 해프닝	혼인과 부부화목
10	徐志摩	船上	시골을 찾은 도시 아가씨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시골 사람들의 씩씩함에서 치유 받는 이야기	자연과 힐링
1	周魯迅	頭髮 이야기	남에 앞서 단발을 하였다가 주위의 지탄에 곤혹을 치른 N선배의 푸념	국민성 비판
6	南庶熙	光明	짐꾼으로 고용한 농민을 줄곧 강도로 의심하나 결국은 그의 덕분에 강도의 손에서 목숨을 건지는 한 장사치의 이야기	하층민의 선량함

<표 2>를 보면 첫 5편은 모두 군벌전쟁 혹은 군벌 정권인 북양정부를 비판하는 작품들이며, 그 다음의 7편 작품은 여성의 삶을 다룬 소설들이다. 즉 여성의 비극적 삶을 그리거나 여성의 독립적 인격과 결혼 생활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 영역은 김홍선의 한국 내 발표 문장들에서도 발견된다.

우선, 「最近의 中國政界」와 「列強窺伺中之中國動亂」, 「中國戰亂과 其 政局의 前途」 등 글에서 김홍선은 군벌 전쟁 및 그 배후에 존재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세력과 야심을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中國戰亂과 其 政局의 前途」에서는 3.18 사건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⁶⁸⁾ 이 사건은 1926년 3월 제국주의자들이 군함을 앞세워 다구커우(大沽口)의 해안방비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북양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내자 베이징에서 대규모의 반제 시위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북양정부 군경의 손에 많은 학생들이 참살 당하는 사변을 말한다. 위의 「阿蘭의 母親」은 바로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다음으로, 김홍선은 「新人間的 女性運動의 指導者 崔海月先生」에서 “自己 손으로 뜯은 그물에 自己 스스로가 걸니여 안타가웁게도 해매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굳센 抵抗과 勇氣를 다하여 解脫된 사람들이 곳 新人間이다.”며 여성들에게 “꼭 갖든 사람”으로서 “上帝에게 빼앗긴 사람의 權威를 恢復”할 것을 주문한다.⁶⁹⁾ 이처럼 그는 여성이 오래된 연속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것을 천도교의 이상 즉 신인간의 이념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그가 남긴 두 편의 소설 역시 모두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 중 소설 「金牌」은 교인 자격을 박탈당한 뒤, 삼년 바칠 성미를 한꺼번에 바쳐 금패를 갖게 되면 교인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는 오도사일파의 속임수에 넘어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그녀는 나중에 남편으로부터 서울서 온 천도교청년당인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사람이 곳 한울이라 한 것은 가장 우리 사람들 우에 잇서 우리를 지배하는
특수계급인 한울(하나님)에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반항하는 소리인
데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권위와 세력은 내의게 꼭 가터 잇는 것이다 하
는 말인데 이제 천도교 밋는 사람들은 곳 이 주의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귀

68) 北京에서 金弘善, 「中國戰亂과 其 政局의 前途-그들의 東衝西突하는 꼴을 實見하면서」, 『개벽』 제70호, 1926.6, 77~78면.

69) 北京에서 天友, 「新人間的 女性運動의 指導者 崔海月先生」, 『新人間』 창간호, 1926.4, 10, 12면.

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잇을 뿐이다.⁷⁰⁾

이는 예의 「新人間의 女性運動의 指導者 崔海月先生」은 물론 翠生の 「革命運動中之韓國新思想」과도 일치되는 논리며 표현이다.

소설 「문제의 편지」 역시 천도교인의 결혼 생활을 다룬 작품이다. 布德日을 맞아 아내는 다른 교인들에게 천도교의 정신을 알리는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된다. 그중 마지막 편지는 옛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혼인은 연애의 무덤”이라며 “우리 가명은 포면상으로만 보면 참 행복이라고 해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만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중등교육(中等教育)을 바든 젊은 남녀가 또 자유연애라는 달콤한 정과 사랑으로 결합된 새 가명이닛가 그만도 못할 리가 잇겠서요! 그러나 이 속에도 남몰르게 불평을 느긋고 잇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어서 그는 남편이 늘 자신을 의심하는 것, 시일마다 교당에 혼자 가야만 하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가정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호소한다. 이는 「範圍內에서」나 「口約三章」 등에서 혼인제도하에 은닉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비판과 겹쳐진다. 특히 편지 말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해월선생(海月先生)의 부녀해방(婦女解放)의 원리에 기인한 말입니다. 보통녀자들과 다른 불평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나는 도로혀 깃버하고 잇읍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가티 오늘이 해월선생의 탄생 백년 기념으로 영원이 명해 노흔 『포덕데이』랍니다.”⁷¹⁾는 표현을 보인다. 즉 김홍선은 소설과 번역서, 敎理 문장, 그리고 중국어로 창작한 작품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며 여성문제에 대한 끈질긴 사유의 궤적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중국단편소설집』의 수록 작품을 통해 우리는 번역자가 반전이 있는 소설들을 선호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명」에서는 줄곧 강도로 의심되던 짐꾼이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천사’가 되며, 「내 아내의 남편」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전 남편이 사형수가 되어 나타나며, 「화지사」에서는 시인을 사모하는 여성의 구애편지가 결국은 아내의 ‘깜짝쇼’였음이 밝혀지는 등이다. 어찌면 이는 1개월 이상 2백여 권의 책을 뒤지며 작품을 선택한 ‘나의 嗜好’⁷²⁾가 무엇인지를

70) 天友, 「金牌」, 『新人間』 제6호, 1926.10, 46면.

71) 北京에서 天友, 「문제의 편지」, 『新人間』 제9호, 1927.1, 34면.

72) 『中国短篇小说集』, 開闢社, 1929.1.25, 「譯者の 말」 1면.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취생의 「어느 수상한 자」 또한 수상쩍은 한국 유학생이 실은 중국의 진보적 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존경할만한 인물이며, 비장한 죽음을 맞은 한국 독립투사의 동생이었다는 등으로 반전이 거듭되는 서사 패턴을 보인다.

여기서 김홍선이 바로 『중국단편소설집』의 번역자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다시 볼 수 있다. 그것은 김홍선의 소설 「문대의 편지」가 링수화의 소설 「花之寺」를 본뜬 모방작이기 때문이다. 「문대의 편지」에서 의심이 많은 남편은 아내가 옛 애인에게 쓴 편지를 읽고 화가 극에 달하나 결국 이튿날 자신이 그 편지를 받게 된다. 즉 그것은 아내가 과거의 연애 시절 다정하던 자신을 상상하며 보낸 편지였던 것이다. 물론 「花之寺」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여인인 척 속이고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문대의 편지」는 아내가 수신인을 옛 애인인 척 속이고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차이가 있지만 쉽게 「문대의 편지」가 「화지사」의 모작임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1925년 11월 7일 『現代評論』에 발표된 여작가 링수화의 「花之寺」가 1927년 1월 『新人間』을 통해 김홍선의 「문대의 편지」로 거듭나는 과정은 중국과 한국, 여성과 남성, 베이징의 영미파 문인들과 서울의 천도교 교인들 사이를 횡단하는 동아시아의 탈경계적 흐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일찍이 김홍선은 한국에서 출판되는 대부분 작품들이 “지리하고 습습하여 건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글잡을 鑑定하는 데는 其量을 보아 따지지 말고 其質을 보아 計算하는 標準을 세울지며 또 其質을 鑑定하는 데는 恒常 時代의 精神과 民衆의 要求로써 評價하기를 希望”한바 있다. 또한 그는 작품 본위로 “無名한 新進 作家의 作品에도 特別히 留義”할 것, “翻譯을 主重하여 히미한 灰色 創作을 制止”할 것, “外國文學 引用 여기에 關하여는 그 引用하는 文字가 人名 地名 及 其他 術語의 엇던 것임을 勿論하고 우리글로서 그의 音을 表하는 外에 各 該國의 字母 그대로의 文字를 並寫하여 讀者로 하여금 그 文字의 由來와 意義를 明白히 理解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면서 “나는 將次 斯業에 從事할 因緣을 가진 者의 一人”이라고 고백한다.⁷³⁾ 실제로 『중국단편소설집』을 살펴보면 ‘翻譯을 主重’하였다 할 것이고, ‘引用하는 文字가 人名 地名 及 其他 術語’일 경우 ‘該國의 字母 그대로의 文字를 並寫’하고 있다. 특히 수록 작품에서 드러나는 사회 비판정신이나 여성과 하층민에 대한

73) 天友, 「나의 最低希望-新聞 雜誌 及 其他 出版業者에 對하여」, 『개벽』 제56호, 1925.2, 55~57면.

동정 등은 ‘시대의 정신과 민중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중국단편소설집』의 「역자의 말」에서는 ‘革命的 文藝’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혁명’은 김홍선의 글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용어이다. 예들어 「實狀은 木窓 속에서」 그는 “國民黨員들은 그들이 정말 **혁명**을 하려하는가 하고疑心하리만큼 幼稚하였으며 共產黨員들은 前者에 比하여는 적히 ××性이 流露함을 볼 수 있으나 그들도 程度로 보아 氣概로 보아 꺾이나 懶弱하다할 수 있엇습니다.”⁷⁴⁾ (강조는 인용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最近의 中國政界」에서는 ‘國民的 革命’, ‘革命政府’,⁷⁵⁾ 「中國戰亂과 其 政局의 前途」에서는 ‘民衆革命勢力’, ‘國民革命運動’⁷⁶⁾ 등 용어를 보인다. 그리고 취생의 이름으로 발표된 중국어 문장에서는 일일이 예들 수 없을 만큼 많은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革命運動中之韓國新思想」은 표제부터 ‘혁명’을 사용하고 있을뿐더러 “한국의 독립운동은 세계혁명의 의미를 지닌다.”, 천도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혁명당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그들이 근 60여 년 동안에 항상 혁명적 수단으로 내외 문제를 대하여 왔기 때문이다.”⁷⁷⁾ 등으로 독립운동은 물론 천도교의 혁신 운동 또한 ‘혁명’의 이름으로 정의한다.

이어서 『중국단편소설집』과 김홍선의 한국 내 발표작들의 문체적 특징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문필활동은 시대적으로 근대 한국 서면어의 형성 변화과정과 맞물려 있어 한문체에서 국어체로, 논설조에서 문학적 용어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중국단편소설집』의 번역 시기와 겹쳐지는 1926~1927년에 발표된 소설 작품들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한다. 김홍선의 「金牌」와 「문데의 편지」는 비구개음 현상과 의성 의태어의 다양한 사용이 무엇보다 문체적으로 두드러진다.

우선 평북 의주 출신이었던 만큼 김홍선의 소설에서는 비구개음이 자주 보인다. 「金牌」⁷⁸⁾에서는 ‘턴디’(41면), ‘시턴주 조화명’, ‘여디 업시’(43면) 등이, 「문데의 편지」⁷⁹⁾에서는 ‘과딩표’(32면), ‘딩도’(36면) 등으로 비구개음이 자주 사용된다. 한편

74) 在北京 金弘善, 「實狀은 木窓 속에서」, 『新人間』 제20호, 1928.1, 47면.

75) 北京 金天友, 「最近의 中國政界」, 『新民』 제2호, 1925.6.10, 41~42면.

76) 北京에서 金弘善, 「中國戰亂과 其 政局의 前途-그들의 東衝西突하는 꼴을 實見하면서」, 『개벽』 제70호, 1926.6, 74, 80면.

77) 翠生, 「革命運動中之韓國新思想」, 『國聞週報』 제3권 제5호, 1926.1.31, 10~11면.

78) 天友, 「金牌」, 『新人間』 제6호, 1926.10.

『중국단편소설집』⁸⁰⁾의 경우도 ‘괴덕소리’(18면), ‘대답’, ‘답시’(103면) 등 다양한 비구개음이 보인다. 특히 근대 텍스트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한국근현대잡지자료’⁸¹⁾를 찾아보면 ‘대답’이나 ‘답시’와 같은 용어 표기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비구개음이 평북 방언의 일반적 현상이라 한다면 김홍선의 독자적인 문체적 특징은 다양한 의성 의태어를 즐겨 사용하는 데서 보다 뚜렷해진다. 「金牌」의 경우 ‘칭충 대며’, ‘문을 덜컥 닳고’, ‘희숙 웃으며’ (41면), ‘슬렁슬렁 지나간다’(42면), ‘희숙 웃고 말었다’(45면) 등이 「문제의 편지」에서는 ‘펼석 물녀안졌다’, ‘문을 덜컥 열고 들어섰다’, ‘얼는 감추려 헛으나’, ‘봉투를 죽- 찢고’, ‘헛속 웃었다’(33면), ‘주먹을 부르르 떨며’, ‘편지를 쭉- 찌저버리고’, ‘탁 차고’(35면), ‘술이 얼건하야’, ‘설렁설렁 차저갔다’, ‘슬거면이 바다들고’, ‘얼건히 취했든’, ‘펼덕 깨었다’(36면) 등으로 짧은 소설임에도 많은 양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중국단편소설집』 역시 일일이 예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의성 의태어를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예만을 들기로 한다.

쓰는 또 책상 압헤 가서 阿蘭의 책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야 늦코 잉크병도 맑금히 닦거놔코 깔고 안는 자리도 투덕투덕 꾸들이며 잇는 것이 맞치 阿蘭이 가 금방 도라올줄로 아는 것 갓탔다.(17면)

중국어 원문을 대조해보면 강조 부분이 ‘整理—整理(정리하다)’, ‘擦—擦(닦다)’, ‘拍打拍打(두드리다)’ 등으로⁸²⁾ 번역에 있어서 굳이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쓰의 마음은 한바탕 시금시금하여지며 굴근 눈물이 줄줄 흘러나린다. 이상 하게도 그 풀포기에 떠러지며 눈물방울이 부터 잇서 흔들흔들 움죽인다.(95면)

79) 北京에서 天友, 「문제의 편지」, 『新人間』 제9호, 1927.1.

80) 『中国短篇小说集』, 開闢社, 1929.1.25. 아래 예문의 강조는 모두 인용자의 표기이며, 인용 면수만을 밝힌다.

81)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82) 楊振聲, 「阿蘭의 母親」, 『現代評論』 제3권 제68호, 1926.3.27, 13면.

중국어 원문에는 ‘發酸(시큼하다)’, ‘直吊(곧추 떨어지다)’, ‘微微的動着(작게 움직이다)’ 등이며⁸³⁾ 의태어의 사용으로 번역문이 생동해진다.

東便의 하얏튼 한울에는 점점 보안빋치 떠올르고 西便의 붉은 저녁 안개가
창압해 흘러가는 조고만 냇물에 返照하야 오로지 **번듯번듯**하는 빗줄 자어낸다.
솔솔 흘러 내려가는 새파란 물에는 左右 언덕에 나란히 서 잇는 枝葉이 茂盛한
버들나무가 빋춰여 잇고 **실실이** 늘어진 가지는 바람에 마조쳐 東으로 西으로
호늘호늘 춤을 춘다.(117면)

여기서도 대응되는 중국어 원문은 ‘閃閃地(번듯번듯)’, ‘清流(맑은 물)’, ‘垂枝(늘어진 가지)’, ‘飄舞(춤을 추다)’ 등이어서⁸⁴⁾ ‘번듯번듯’ 외의 모든 의태어는 번역자의 창조적인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단편소설집』에서는 모든 웃는 모습을 ‘희죽히’라는 의태어로 형용하는데,⁸⁵⁾ 이는 「金牌」와 「문태의 편지」에서 자주 사용된 ‘희숙’과 ‘희스’이라는 김홍선만의 독특한 의태어를 쉽게 연상시키며, 편집자가 ‘희죽’으로 순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단편소설집』에서 다양한 의성 의태어의 사용은 글의 생동감을 더하여 주며 언어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준다. 특히 “아주 맑웃맑웃한 별이 달 갯가이에서 번적인다. 腴玉은 더욱 정신이 깨긋하야졌다.”(101면)라던가 “그의 마음은 또 임금임금 뛰기 시작하였다.”(148면) 등의 표현은 한국어의 묘미를 한껏 살려준다. 그리고 이는 “翻譯은 創作 以上の 努力을 드려야 한다는”⁸⁶⁾ 「譯者の 말」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83) 徐志摩, 「船上」, 『現代評論』 제1권 제18호, 1925.4.1, 11면.

84) 盧隱女士, 「傍晚來的來客」, 『文學研究會叢書: 小說彙刊』第1集, 上海商務印書館, 1923.7, 제3판, 63면.

85) 『중국단편소설집』, 開闢社, 1929.1.25의 64, 71, 103, 124, 129면을 볼 수 있다.

86) 『中国短篇小说集』, 開闢社, 1929.1.25, 「譯者の 말」 3면.

Ⅳ. 개벽사, 계연집과 백년의 미스터리

김홍선이 『중국단편소설집』의 번역자라는 추정이 온전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편집자들이 굳이 번역자의 이름을 숨긴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홍선과 개벽사 혹은 계연집은 어떤 관계였을까? 김홍선이 『개벽』에 발표한 글은 「上海로부터 漢城까지」(1920.9), 「나의 最低希望」(1925.2), 「中國戰亂과 其 政局의 前途」(1926.6) 등 3편뿐이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밝혀지다시피 그는 일찍 『개벽』 상하이분매소의 경영을 맡은바가 있다.⁸⁷⁾ 1921년 2월 『개벽』 제8호와 4월 제10호의 「개벽 분매소 일람표」에는 상하이 분매소 경영자로 “上海法界 寶昌路 寶康里 一五號, 金弘善”이 명시되어 있다.⁸⁸⁾

김홍선과 『개벽』지의 인연은 朴達成을 통해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홍선은 자신의 글에서 박달성을 두 번이나 언급한다. 우선은 「上海로부터 漢城까지」라는 글에서 1920년 여름의 귀향길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8월 11일 밤, 기차를 타고 평북 태천을 지나는 장면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宣川, 定州 모도 지나 嘉山쯤 오게 되다. 「아마 이 近境이 泰川 고을이겠지.
나의 사랑하는 P兄의 집이 저- 茄子峯山 압헐가 뒤인가?」 나는 車窓을 열떠리
고 趣味있게 바라본다.⁸⁹⁾

여기서 ‘P兄’이 바로 박달성이다. 박달성은 1895년 태천군 원면에서 태어났으며, ‘茄子峰人’은 그가 고향의 산 이름에서 따온 필명이다.⁹⁰⁾ 또 ‘P’가 ‘박’씨성의 두음임은 자명하다.

87) 최수일, “『개벽』 소재 유통 관련 자료 일람”, 『개벽연구』, 소명출판, 2008, 337~338면; 金玟承, 「『개벽』의 중국론과 근대인식·이동국의 중국 정치·문화 논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6, 34면.

88) 「開闢分賣所 一覽表」, 『개벽』 제8호, 1921.2, 110면; 「開闢分賣所 一覽表(續前)」, 『개벽』 제10호, 1921.4, 102면. 제10호에서는 ‘金弘善’으로 한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

89) 天友, 「上海로부터 漢城까지」, 『개벽』 제4호, 1920.9.25, 121면.

90)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인 朴達成의 사회·종교관과 문화운동」, 『동학학보』 22, 동학학회, 2011, 10~11면.

그 후 1927년 말, 김홍선은 국민당좌파와의 연락 혐의로 베이징경찰청에 체포되어 근 5개월의 영어 생활 끝에 석방되는데, 석방되자마자 바로 박달성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 편지는 「實狀은 木窓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신인간』에 발표된다. 김홍선은 박달성을 ‘春坡兄’(춘파는 박달성의 호이다)이라 친근히 부르며 “春坡兄, 兄님의 주신 편지는 반가히 拜讀하였읍니다. 兄님은 내가 그동안 늘 鐵窓 속에 잇섯든 줄만 아시고 말씀하섯지만 實狀은 鐵窓이 아니라 本(‘木’의 오식임, 인용자)窓 속에서 뜨거운 녀름도 지내고 淒涼한 가을도 지내었으며 凜凜한 겨울 맛도 톡톡히 맛보았읍니다.”⁹¹⁾라고 한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잦은 서신왕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달성은 김홍선과 같은 평안북도 출신으로서 1919년 천도교 태천교구 共宣員으로 근무, 1920년 3월 천도교청년회 간위원으로 선임, 1923년 9월에는 천도교청년당의 발기인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⁹²⁾ 특히 그는 1921년 1월 이전 개벽사에 입사, 개벽사의 사회부주임을 역임하며⁹³⁾ 1926년 천도교청년당의 기관지인 『新人間』 발간 당시부터 시작하여 6년 간 줄곧 주필로 활동하였다.⁹⁴⁾ 이에 김홍선이 『신인간』을 주된 발표지면으로 하였던 것도 박달성의 역할로 보이는바 실제로 김홍선은 『신인간』 동인이었다. 창간에 앞서 그는 박달성, 이돈화, 김기전, 방정환, 차상찬 등 개벽사의 주요 편집자들과 함께 『신인간』 ‘책임집필자’로 공표된다.⁹⁵⁾ 김홍선이 『신인간』 및 천도교청년당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였음은 상기 박달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兄님, 그동안 내가 은근히 늦긴 孤寂은 지금 新人間을 넓고나니 그것의 蹤跡을 차저볼 수 없으리만큼 나도 몰으게 消滅되고 말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靑年黨의 組織이 黨員의 訓練과 活動에 適切 又 嚴密하게 되여감을 금즉히 汲汲하며 또는 黨員동무들의 움싹움싹 움직이어 나아가는 情境을 볼 때에 나도 어서 速히 도라가 여러 분의 뒤를 따라가고 심픈 생각이 간절합니다.”⁹⁶⁾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난

91) 在北京 金弘善, 「實狀은 木窓 속에서」, 『新人間』 제20호, 1928.1, 47면.

92) 조규태, 앞의 논문, 15, 25, 33면.

93) 정용서,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6, 157, 161~167면.

94)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6.1, 4면.

95) 「雜誌 『新人間』 천도교청년당에서 발행할 터이다」, 『조선일보』, 1926.1.22, 2면; 「月刊雜誌 『新人間』 發行, 천도교청년당에서」, 『시대일보』, 1926.1.22, 2면.

96) 在北京 金弘善, 「實狀은 木窓 속에서」, 『新人間』 제20호, 1928.1, 47면.

다. 또한 그는 5개월 남짓한 영어 생활에서 풀려난 지 불과 한 달째인 1928년 1월 13일, ‘病床’에서조차 “우리 黨의 規律로써 規定되야 잇는 「絶對服從」의 意義”를 강조하고 “가장 覺悟잇고 가장 徹底한 開闢的 일군”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⁹⁷⁾

한편 계연집은 보성중학교 제6회(1915.3.29) 졸업생이며 박달성은 제7회(1916.3.26) 졸업생이다.⁹⁸⁾ 그런데 베이징 평민대학의 재학생 일람표에는 김홍선이 “普成學校 畢業”으로 되어 있다.⁹⁹⁾ 그러나 보성중학교 1~8회(1910.4.1~1917.3.24) 및 보성고등보통학교 제1~4회(1918.3.20.~1921)의 졸업생 명부에는 김홍선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¹⁰⁰⁾ 물론 평민대학 입학 자격을 갖기 위해 김홍선이 학력을 거짓으로 말했을 가능성이나 비록 보성중학교를 다닌 적은 있으나 졸업을 하지 않아 명부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보다 계연집은 평북 선천군이 고향으로서 선천군은 김홍선의 고향인 의주군과 이웃하여 있다. 그는 1921년 8월 13일 ‘선천군대교구겸교구 金融員’으로 임명되며 1923년 경 천도교중앙총리원 경리과원으로 발탁되었다.¹⁰¹⁾ 한편 김홍선이 상하이로 가게 된 것은 바로 의주대교구장 崔碩連과 선천대교구장 李君五의 파견에 의한 것이며 1921년 5월 국민대표회의 상해기성회 결성 후 그 자금마련을 위해 다시 국내로 파견되어 최석련과 이군오에게 자금 후원 요청을 한다. 이에 “최석련이 3천원을 모집하고, 이군오가 1만 3천원을 모집하”는데¹⁰²⁾ 이 자금 모집 과정에 선천교구의 금융원이었던 계연집이 관계되었을 것은 당연할 일이며 이에 김홍선과 일찍부터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계연집은 1922년 10월 박달성과 함께 청도교청년회 간담원이 되며¹⁰³⁾ 평북

97) 北京 翠生, 「엇저서 絶代服從을 해야 하는가」, 『新人間』 제21호, 1928.2, 30~31면.

98) 『私立普成中學校 第八回 卒業生 紀念』, 京城: 高等寫眞館, 1917.3.

99) 平民大學 教務處, 『平民大學概觀』, 和記印字館, 1923.12, 58면.

100) 「普成校友會員錄」, 『普成校友會報』 제1호, 普成校友會, 1921.7.2, 18~28면. 제7회 졸업생 명부에 ‘金天羽’라는 이름이 보이나 한자가 다른데다가 그 원적이 “平南 江東郡”으로 되어 있어 김홍선으로 보기 힘들다.

101) 계훈모, 「나의 아버지 봉곡 계연집」, 『新人間』 546, 1996.1, 54면.

102) 金尙炫, 「1920年代 中國 關內 獨立運動과 天道教-3·1運動 以後 崔東昨의 活動을 中心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7, 13, 29~30면.

103) 성주현, 「천도교청년당(1923-1939)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9, 23면.

태천 출신인 이두성과는 천도교청년당의 핵심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교접이 있게 된다. 특히 1923년 이후로 계연집은 천도교중앙종리원 경리과 宗理師로 이두성은 庶務과 종리사로 함께 일한다.¹⁰⁴⁾ 이외 지인의 추억에 의하면 1926년 8월 『개벽』이 폐간된 후, 천도교회의 재정원조가 끊기며 개벽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당시 천도교중앙종리원 경리과원으로 일하던 계연집은 자기의 급여를 털어 개벽사 편집자들의 술값을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한다.¹⁰⁵⁾ 이를 보아 계연집이 이두성에게 김홍선을 번역자로 추천하거나, 혹은 경영난 해결을 위해 『중국단편소설집』 단행본 출간을 추진토록 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김홍선은 1928년 4월 11일 텐진의 白河 연안으로 유인되어 한인 의열단원들의 손에 피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그리고 이 사건은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의 國際爲替 사건과 연관이 되어 뒤늦게야 그 전말을 드러내게 된다. 즉 1928년 5월, 국제위체사건에 참가한 의열단원 李鐘元이 피체되어 경찰에 취조당하는 과정에 김홍선을 죽인 사실을 토설하고 6월이 되어서야 기사화된다.¹⁰⁶⁾ 그것도 이름이 ‘金密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며 그 이후 1928년 12월 말 신채호 공판, 즉 국제위체사건 공판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금년 사월 중순 경 신의주 출생이고 북경 평민대학(北京平民大學)을 졸업한 김턴우(金天友)가 라석주(羅錫疇) 사건을 북경 일본 령사관 경찰서에 밀고하여 그의 동생인 리승춘(李承春) 외 세 사람이 테포되어 조선○○운동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텐진 교외로 다리고 가서 전기 리필연 리종원과 의열단원 오륙명이 포승으로 목을 매어 죽인 후 그대로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¹⁰⁷⁾는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그 이후로도 이 사건은 1929년 11월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의해 자주 기사화되는데¹⁰⁸⁾ 김홍선이 일제의 ‘밀정’이며, 의열단원에 의해 ‘처단’되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개벽사로서는 『중국단편

104) 『천도교회월보』 제155호, 1923.8.15, 첫머리 사진 부분 참조.

105) 不同歸, 「세월이 물고간 어린시절」, 『新人間』 286, 1971.6, 102면.

106) 「密偵을 殺害 白河에 暗葬」, 『동아일보』, 1928.6.3, 2면.

107) 「各民族 代表 百二十名の 東方無政府聯盟, 中人發起로 昨年 九月 北京에서 大會合, 大連 申采浩 事件의 正體」, 『조선일보』, 1928.12.28, 5면.

108) 「無政府主義聯盟 大連에서 第二回 公判」, 『동아일보』, 1929.2.12, 2면; 「國際爲替事件 等 事實 大概 是認」, 『조선일보』, 1929.2.12, 5면; 「東邦聯盟事件 第三回 公判」, 『동아일보』, 1929.4.8, 2면; 「東方無政府聯盟 申采浩 等 續行 公判」, 『조선일보』, 1929.7.8, 2면; 「證據調로 延期된 申采浩 公判」, 『동아일보』, 1929.7.9, 5면; 「申采浩事件 實地로 檢證」, 『조선일보』 1929.11.11, 2면.

소설집』의 번역자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번역자의 이름을 밝힐 경우 판매에 악재가 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진영의 내분을 야기하기 십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김홍선 피살 사건이 천도교에 알려진 것은 보다 이른 시기인 1928년 4월 27일이었다. 『天道敎中央宗理院庶務課日誌(1928)』의 4월 27일 조에 “出勤 視務하다. 北京 金天友君이 暗殺當하였다는 通信이 今朝에 來書하다.”¹⁰⁹⁾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암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아 천도교에서는 이미 김홍선이 유인되어 타살된 경위를 알고 있었음을 뜻한다. 또한 김홍선이 천도교청년당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음에도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천도교에서는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김홍선이 ‘밀정’ 혐의를 받은 만큼 물의를 피해가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럼에도 번역서에 「역자의 말」을 그대로 싣고 있음은 천우들의 말없는 애도로 보인다.

V. 먼 길을 돌아온 이유

『중국단편소설집』의 발행인인 이두성은 1930년 5월 8일 별세하며¹¹⁰⁾ 박달성은 1934년 5월 9일 별세하였다.¹¹¹⁾ 한편 계연집은 해방 이후로도 천도교 서울교구장(1955) 등을 거쳐 1969년 2월 6일 작고한다.¹¹²⁾ 당사자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였을 수도 있는 작업이 한 세기 가까이 한국근대문학번역사의 중요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음은 냉전체제와 서구중심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한국근대문학연구의 폭과 관심의 초점을 반성하게 한다.

이제 순서를 조금 달리하여 상기 내용을 정리한다면, 천우라는 필명으로 『개벽』, 『신민』, 『신인간』 등을 주요 지면으로 문필활동을 한 천도교인 김홍선은 중국의 『京報副刊』, 『國聞週報』 등 저명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활발한 문필활동을 펼친 ‘취생’이

109) 『天道敎中央宗理院庶務課日誌 布德六十九年 一月~十二月(1928)』(필사본), 1928.

110) 「人事消息」, 『조선일보』 1930.5.10, 1면.

111)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6.1, 4면.

112) 李東初, 『동학천도교 인명사전(제Ⅱ판)』,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9, 70면.

기도 하다. 이는 그가 『신인간』에서도 취생이란 필명을 사용한 적이 있고, 중국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이 겹쳐지는 내용이 있으며, 중국어 문장에서 천도교에 대해 자주 다루었으며, 그 인맥관계가 모두 베이징 평민대학과 이어져 있다는 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나아가 1929년 1월 개벽사에서 출간한 『중국단편소설집』의 번역자 또한 김홍선이다. 그것은 번역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출처별로 정리해 볼 때 김홍선의 중국어 문장의 발표지면과 겹쳐지며, 그 원작 출처나 작가가 모두 평민대학에서 김홍선이 쌓아온 사제관계 특히는 저우쥘런, 쑨푸위안, 푸보잉, 우난루, 쉬즈모 등과 연계되어 있음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또한 번역서의 주된 주제인 군벌 전쟁에 대한 비판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김홍선이 보여 온 관심 영역과 겹쳐지고, 김홍선의 소설 「문제의 편지」가 번역서 수록 작품 「화지사」의 모작이며, 같은 시기 『신인간』에 발표한 김홍선의 소설들에서 보이는 평북 방언의 구사나 의성 의태어의 풍부한 사용 등이 번역서와 문체적으로도 근접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가 있다.

본고에서 이처럼 먼 길을 돌아 긴 논의를 펼친 이유는 단지 『중국단편소설집』의 번역자가 김홍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중국단편소설집』이라는 번역서가 있기까지, 그리고 번역자의 이름을 숨겨야만 했던 노정의 풍경들, 말하자면 서로 얹혀 있는 수많은 연결의 고리들과 그물을 드러내고자 하였음이다. 이에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던 김홍선이 바로 『중국단편소설집』의 번역자라는 것은 한국에서의 중국 신문학 수용이 단지 문인이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혁명 혹은 저항의 의지가 간단없이 문학장 안으로 침투된 결과였음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김홍선이 천도교인이었으며 천도교청년당원으로 활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립운동 과정에서 천도교의 이념이 어떻게 반제사상과 접목되는지, 천도교인들이 중국의 언론인 및 문학장과 어떤 연동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낳게 된다. 또한 이는 김홍선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김홍선의 중국에서의 경력과 문필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各民族 代表 百二十名の 東方無政府聯盟, 中人 發起로 昨年 九月 北京에서 大會合, 大連 申采浩 事件의 正體」, 『조선일보』, 1928.12.28
- 「開闢分賣所 一覽表」, 『개벽』 제8호, 1921.2
- 「開闢分賣所 一覽表(續前)」, 『개벽』 제10호, 1921.4
- 「國際爲替事件 等 事實 大概 是認」, 『조선일보』, 1929.2.12
- 「金弘善氏 放免」, 『동아일보』, 1927.12.9
- 「金弘善氏 放免, 북경경찰청에서」, 『조선일보』, 1927.12.9
- 「東方無政府聯盟 申采浩 等 續行 公判」, 『조선일보』, 1929.7.8
- 「東邦聯盟事件 第三回 公判」, 『동아일보』, 1929.4.8
- 「無政府主義聯盟 大連에서 第二回 公判」, 『동아일보』, 1929.2.12
- 「密偵을 殺害 白河에 暗葬」, 『동아일보』, 1928.6.3
- 「普成校友會會員錄」, 『普成校友會報』 제1호, 普成校友會, 1921.7.2
- 「北京 留學한 四君의 榮譽: 조흔 성적으로 各大學 卒業」, 『中外日報』, 1927.6.23
- 「申采浩事件 實地로 檢證」, 『조선일보』, 1929.11.11
- 「月刊雜誌 『新人間』 發行, 천도교청년당에서」, 『시대일보』, 1926.1.22
- 「異國서 畢業한 榮譽있는 四君」, 『조선일보』, 1927.6.24
- 「異域에서 錦衣 입고 고국으로 돌아 올 北京 留學生 四名」, 『동아일보』, 1927.6.24
- 「人事消息」, 『조선일보』, 1930.5.10
- 「雜誌 『新人間』 천도교청년당에서 발행할 터이다」, 『조선일보』, 1926.1.22
- 「證據調로 延期된 申采浩 公判」, 『동아일보』, 1929.7.9
- 「策應會交涉」, 『독립신문』, 1925.9.25
- 『私立普成中學校 第八回 卒業生 紀念』, 京城: 高等寫眞館, 1917.3
- 『中国短篇小说集』, 開闢社, 1929.1.25
- 『天道教中央宗理院庶務課日誌 布德六十九年 一月~十二月(1928)』(필사본), 1928
- 『천도교회월보』 제155호, 1923.8
- 계훈모, 「나의 아버지 봉곡 계연집」, 『新人間』 제546호, 1996.1
- 金天友, 「列强窺伺中之中國動亂」, 『新民』 제8호, 1925.12
- _____, 「最近의 中國政界」, 『新民』 제2호, 1925.6
- 金弘善, 「實狀은 木窓 속에서」, 『新人間』 제20호, 1928.1
- _____, 「中國戰亂과 其 政局의 前途-그들의 東衝西突하는 꼴을 實見하면서」, 『개벽』 제70호, 1926.6
-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6

- 不同歸, 「세월이 물고간 어린시절」, 『新人間』 제286호, 1971.6
- 天友, 「孔君의 熱情! 熱情을 讀하고서」, 『天道教會月報』 제176호, 1925.5
- _____, 「過渡期에 處한 吾人의 任務」, 『新人間』 제2호, 1926.6
- _____, 「教役者의 責任」, 『新人間』 제11호, 1927.3
- _____, 「金牌」, 『新人間』 6호, 1926.10
- _____, 「나의 最低希望-新聞 雜誌 及 其他 出版業者에 對하여」, 『개벽』 제56호, 1925.2
- _____, 「문제의 편지」, 『新人間』 제9호, 1927.1
- _____, 「上海로부터 漢城까지」, 『개벽』 제4호, 1920.9
- _____, 「新人間의 女性運動의 指導者 崔海月先生」, 『新人間』 창간호, 1926.4
- 翠生, 「엇저서 絶대服從을 해야 하는가」, 『新人間』 제21호, 1928.2
- 朝鮮總督府警務局長, 「天道教留支檢學獎勵會ニ關スル件」, 1925.6.2,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haf_072_0440[검색일: 2021.8.25]
- 鏡心, 「範圍內」, 『晨報副鐫』, 1923.8.5~6
- _____, 「範圍內」, 『晨報社叢書 第六種: 小說第二集』, 北京: 晨報社出版部, 1924
- 金翠生, 「外國青年教育現狀-朝鮮青年教育現狀」, 『教育雜誌』 제18권 제1호, 1926.1.20
- 浪漫, 「吾妻之夫」, 『國聞週報』 제2권 제39호, 1925.10.11
- 魯迅, 「頭髮的故事」, 『吶喊』, 北京: 北京新潮社, 1923.8
- _____, 『魯迅全集 第十五卷 日記』,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盧隱女士, 「傍晚來的來客」, 『文學研究會叢書: 小說彙刊』 第1集, 上海商務印書館, 1923.7, 제3판
- 大悲, 「民不聊死」, 『晨報』(第7版), 1920.4.16
- _____, 「民不聊死」, 『晨報社叢書 第五種: 小說第一集』, 北京: 晨報社出版部, 1920.12.15
- 馬二先生, 「離婚之後」, 『國聞週報』 제1권 제21호, 1924.12.21
- 氷心女士, 「一篇小說的結局」, 『晨報』(第7版), 1920.1.29
- _____, 「一篇小說的結局」, 『晨報社叢書 第五種: 小說第一集』, 北京: 晨報社出版部, 1920.12.15
- 徐志摩, 「船上」, 『現代評論』 제1권 제18호, 1925.4.1
- 叔華, 「花之寺」, 『現代評論』 제2권 제48호, 1925.11.7
- 晨曦, 「光明」, 『晨報』(第7版), 1920.11.11~12
- _____, 「光明」, 『晨報社叢書第五種: 小說第一集』, 北京: 晨報社出版部, 1920.12.15
- 楊振聲, 「阿蘭的母親」, 『現代評論』 제3권 제68호, 1926.3.27
- 葉紹鈞, 「兩封回信」, 『文學研究會叢書: 隔膜(創作集一)』, 上海: 上海商務印書館, 1922.3
- 止水, 「城里的共和」, 『晨報』(第7版) 1919.6.4
- _____, 「城里的共和」, 『晨報社叢書 第五種: 小說第一集』, 北京: 晨報社出版部, 1920
- 翠生, 「一個疑問的人」, 『京報副刊』 제358~360호, 1925.12.15~17
- _____, 「朝鮮獨立運動概觀」, 『國聞週報』 제2권 제7호, 1925.3.1

- ____, 「革命運動中之韓國新思想」, 『國聞週報』 제3권 제5호, 1926.1.31
- 平民大學 敎務處, 『平民大學概觀』, 和記印字館, 1923
- 馮文炳, 「講究的信封」, 『新潮社文藝叢書之九: 竹林的故事』, 北京: 北京新潮社, 1925
- 欽文, 「口約三章」, 『晨報副鐫』, 1923.9.25
- ____, 「口約三章」, 『晨報社叢書 第六種: 小說第二集』, 北京: 晨報社出版部, 1924
- 李東初, 『동학천도교 인명사전(제II판)』,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9
-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출판, 2008
- 홍석표, 『루쉰과 근대 한국-동아시아 공존을 위한 상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李鐵虎, 『民國北京大中學校沿革』,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7
- 金玟承, 「『개벽』의 중국론과 근대인식-이동국의 중국 정치·문화 논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6
- 金尙炫, 「1920年代 中國 關內 獨立運動과 天道教-3·1運動 以後 崔東旼의 活動을 中心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55,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 성주현, 「천도교청년당(1923-1939)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9
- 禹在鎬·徐景敏, 「梁白樺의 번역서 『中國短篇小說集』에 대하여」, 『第28次 東北亞細亞文化學會 國際學術大會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 육령, 「1920년대 주작인의 조선인식 연구-김홍선과의 교우 및 전기적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0, 국제어문학회, 2021
- 李時活, 「일제강점기 한국 작가들의 중국 현대문학 바라보기와 수용양상-梁建植, 李東谷, 梁明을 중심으로」, 『중국학』 33, 대한중국학회, 2009
- 이웅·뉴린제, 「재중 독립운동가 이달의 아나키즘 사상과 의식세계-《조선의용대통신》 및 《구망일보(救亡日報)》 기고문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103, 한국중국어문화학회, 2020
- 이주노, 「『魯迅日記』 중의 金天友 小考-魯迅兄弟와 無政府主義를 檢하여 논함」, 『중국현대문학』 86,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8
- 정용서,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인 朴達成의 사회·종교관과 문화운동」, 『동학학보』 22, 동학학회, 2011
- 趙誠煥, 「북경의 기억, 그리고 서사된 북경」, 『중국학』 27, 대한중국학회, 2006

- 조영추, 「중국에서의 한국근대문학 수용 양상 연구(1926~1949)」, 南京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 _____, 「한·중 근대문학 상호인식의 일 단면-루쉰과 장혁주 문학의 수용 상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제11회 한국 언어·문학·문화국제 학술대회, 2016.8.4
- 차태근, 「한국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시화-1920년대 전반 李東谷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4, 한국학연구소, 2019
- 江嘉, 「現代文壇派系研究-以陳源爲紐帶的考察」, 武漢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 季濤, 「胡政之創辦『國聞週報』」, 『鐘山風雨』 1, 江蘇省政協文史委員會, 2005.2.10.
- 黎人忠, 「蒲伯英及其新文化思想」, 『廣安日報』, 2008.3.6
- 廖華力, 「蒲殿俊與『晨報』副刊」, 『西華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6, 西華師範大學, 2019.11
- 李秀雲, 「何心冷的副刊編輯生涯」, 『新聞知識』 1, 陝西日報社·陝西省新聞研究所·陝西省新聞工作者協會, 2010.1.15
- 李秀萍, 「文學研究會與中國現代文學制度」, 首都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 陳樹萍, 「北新書局與中國現代文學」, 華東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 崔燕·崔銀河, 「孫伏園與『晨報副刊』實證研究」, 『魯迅研究月刊』 12, 北京魯迅博物館, 2019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잡지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Investigation of the Translator of *The Collection of Chinese Short Stories* Published by Gaebyuksa

Choe, Chang-ruk · Zhao, Ying-qiu

This paper intends to reveal the mystery of who was the translator of Korea's first collection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The Collection of Chinese Short Stories* (Gaebyuksa, 1929.1.25) through an empirical study.

The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rces and authorship of the Chinese originals included in the translation and the professors at Beijing Civilian University where Kim Hong-Seon attended, the thematic and stylistic proximity between the translation and Kim Hong-Seon's Korean work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Hong-Seon, Gaebyuksa and Chondogyo, demonstrating that Kim Hong-Seon was the translator. In particular, this paper verifies that Kim Hong-Seon, who wrote under the pseudonym Ceonwoo, was the Korean student "Cuisheng" who was active in China's *Supplement to Peking Daily* (*Jingbao Fukan*) and *Guowen Weekly* (*Guowen zhoubao*).

The fact that the translator of *The Collection of Chinese Short Stories* is Kim Hong-Seon shows that the acceptance of the modern Chinese literature in Korea transcended the literature field as an expression of the will of "revolution" and resistance, and it reveals the process of linking the follower of Chondogyo and independence activist in Korea with the journalist and literature field in China.

Key Words : *The Collection of Chinese Short Stories*, Kim Hong-Seon, Cuisheng, Chondogyo, Gaebyuksa, Beijing Civilian University